



표지사진 : 함경북도 라선시 백합유치원어린이들이 아침 조례하는 모습 (2002.3)

JTS 통권 35호 2002년 5·6월

펴낸날 : 2002. 5. 1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최정연, 김경희,
이순희, 이마경, 윤미옥, 배외선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화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인도 통계소와리 소식

- 4 한그루의 보리수가 되어
- 6 환자와의 신경전(?)
- 7 기술중학교 공사를 하면서
- 8 수자타 통신

북안

- 10 라선시를 다녀와서

후원의 소리

- 12 인도의 거리가 그리워 질때
- 13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이웃

- 14 회원관리 자원활동가와의 만남
- 16 재일한국청년연합 김택수님과과의 만남

광고

- 17 인도체험 봉사활동

활동보고 및 안내

- 18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 사업
국내사업
물품지원
- 20 신규회원 명단 및 특별성금
- 21 JTS 인도 결핵퇴치사업
- 22 통일대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 24 전체 후원 현황
-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한 그루 보리수가 되어

서원중 님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자원활동가, 원불교 교무)

아침 7시 학교 정문에 나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마스떼 교무님' 하며 책가방을 메고 들어오는 학생들과 마주한다. 요즘은 하절기라 7시 30분에 첫 수업이 시작되어 6시에 집에서 출발 해야하는 학생들이 많다. 7시 10분에 전체 조회가 시작되는데, 이 때 늦으면 한국의 여느 학교와 다르지 않게 약간의 벌을 받는다.

학교에서 나의 역할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심하지 않은 상처를 소독해주고 간단한 약을 발라주는 일이다. 난 이 일에 만족하고 다 낮은 상처를 보여주며 씩 웃는 아이들을 대하여 보람을 느낀다. 이곳에서는 영어와 힌디어를 같은 비중으로 가르치지만 저학년(1, 2학년)인 경우 영어가 잘 통하지 않아 힌디어 교재가 없으면 한국어 수업이 어렵다. 하지만 3학년부터는 이해 수준도 높고 영어가 서로 통해서 힌디어 교재가 아니어도 수업은 가능하다. 그 외 YSS(기술학교) 학생들 중학교 과정의 상급생들, 태권도 사범에게 특별수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살아있

고 배운 한국어를 복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있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처음부터 인도는 나에게 낯설지가 않았고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지 않았다. 이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대종사가 석가모니불을 현연불로 모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서 대종사와 함께 석가모니불도 스승님으로 모셔 왔기에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이곳 인도를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JIS 실무자들도 그렇고 이곳 자원봉사들, JIS를 후원해 주는 모든 사람들, 과거생 언젠가는 이곳에서 결식을 했기에 후원자로, 실무자로, 자원봉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아닐까?

나는 이곳 생활에서 아쉬운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곳 어른들이나 어린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모르지만 도와주고 싶은 부분이 많다. 그래도 JIS에서 운영하는 Sujata Academy에 다니는 학생들은 주변 아이들에 비하면 귀족자 대접을 받는다. 먹는 것, 입는 것, 병원 등 기

본적인 것들이 한국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해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도와주려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마을마다 유치원을 운영해도 부모가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오기 싫어 집에서 동네에서 왔다갔다하며 여행객들에게 손벌리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위안을 삼는다.

학교 생활 도중 가끔 간식도 나눠주고 밥도 담아 주면서 작은 돈으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고 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덜 쓰고 조금 덜 먹으면서 모아서 보내주는 후원금이 이곳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교육받을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고맙다. 해방 직후 6.25때 많은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산 넘어 왔던 아이들,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아이들이 돌아간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다. 이 뜨거운 날씨에 새벽부터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왔다가 무엇을 배우고 돌아갈까? 우리 돈 1000원이 없어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돌을 맨발로 디디며 언덕을 넘나들며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키워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뒤돌아서는데, 막 피어 오른 연녹색 싱싱한 보리수 잎이 나를 부른다. 학교 운동장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수가 다시 낙엽이지고 새순이 돌아날 것이다. 심은 지 6년이 되었다는데 한국에서 20년은 컸을 법한 아름답리 나무다. 1년에 2번 꽃이 피고 진다하니 이곳의 한 그루 보리수처럼 Sujata Academy 학생들이 가난을 벗고, 질병을 벗고, 무지를 떨쳐내어 가르쳐 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인도의 생명수를 아름답리 한 그루 보리수로 거둬들여 자라날 것이라 믿는다.



환자와의 신경전(?)

안영민 님 (인도 지바카병원 자원활동가)

1. 줄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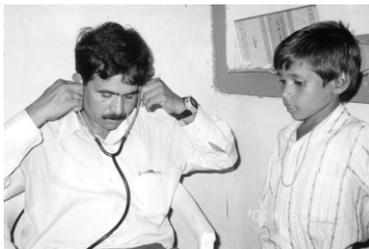
꼭 사람이 많지 않은 날이라도 새치기하는 사람은 자주 있다.

처음에는 새치기를 하든 말든 접수받는데 온 신경이 쓰여 몰랐는데

하던 일이 익숙해지니 어느 틈엔가 사람들 사이로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줄 서라고 한다. 어떤 때는 새치기를 해 놓고도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서는 게 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아무튼 줄서라고 하고 뒤로 가라고 하면 열 명 가운데 일곱, 여덟은 한 두 명 뒤로 가서 다시 끼어든다.

내가 다시 뒤로 가라고 하면 또 두 명 뒤로 가서 쑥 기어든다. 바로 이 순간 성격 좋은 니사(이정아 : 내가 접수받기 전에 일 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격 나쁜 내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별떡 일어나서 ‘줄 서세요’ ‘뒤로 가세요’. 소리치면 그제야 맨 뒤로 어슬렁어슬렁 간다. 오 주여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2. 약 주세요

진료도 끝나고 의사가 돌아가고 환자들 약을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에구 이런 일이..

미안한 마음에 얼른 환자 카드 번호를 확인하고 오늘 진료 기록을 뒤진다.

그런데 다 뒤져봐도 그 환자 진료 기록이 없다.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잘못 찾았나 싶어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를 두 세 번 결국 찾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오늘 진료 받았어요 물어보면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

에구구 미치겠네

진료도 안 받았는데 제가 무슨 약을 어떻게 줘요? 따져 물으면.

‘아프니깐 약 주세요’ 라고 되려 큰소리 친다. 어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내가 일하는 지바카 병원은

joyful-즐겁고 **intelligent**-지적이며

various-다양하고 **affectionate**-다정하고

kind-상냥하고 **amusing**-즐거운 병원입니다.

기술중학교 공사를 하면서

lave 정상민 님 (인도 기술학교 공사 자원활동가)

드디어 기술 중학교 2층이 완성되었다. 7개월만에 학교 기본 골조공사가 끝난 것이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날이 왔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기쁨 반 허무 반이었다.

정말 많이 기쁨 줄 알았는데, 한편으론 큰 목표 하나가 사라진 것 같고 옆에 설거사님께서 살아 계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다. 설거사님 없이 혼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봉사시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전문가가 아닌 내가 무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이렇듯 불안하게 출발한 공사였지만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2층이 마무리 되어 나를 믿고 따라준 우리 인부 아저씨들이 제일 고맙다.

지금은 미장부터 해서 건물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며칠 전에 한국에서 공사 맡으실 실무자 분도 오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과연 처음에 공사장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파트에서 일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한국에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을 나를 생각하며, 남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참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마지막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는 우리 가족들, 언제나 포근한 큰 누나 산티시스터, 항상 웃는 모습이 아주 예쁜 둘째 누나 영주 시스터,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만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셋째 누나 선주 시스터, 마음이 약한 교무님, 조금은 엉뚱한 큰형 전등 범우, 매일 도를 닦는 둘째형 영민 브라더, 먹을 것 굶주려 있는 막내형 동훈 브라더 모두 오손 도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자타 통신

김동훈 님 (인도결핵퇴치 자원활동가)

무지 덥다. 말만 봄이지 낮에 폭염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밤마다 열대야에 시달려야 한다. 더위를 못 이기고 새벽에 일어나 샤워를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자 자원 봉사자들은 모두 옷통을 벗고 다닌다.

산띠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개발했다면서 '로기'를 물에 적서 머리에 두르고 다닌다. 그 놀라운(?) 효능에 틈만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써보라고 협박(?) 하지만 모두들 너무 더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더위는 우리의 계획을 바꿔 놓았다.

수자타 아카데미는 오전 7시부터 수업을 해서 9시 반에 점심을 먹고 오전 중에 수업을 끝낸다. 공사장은 아침 6시 반으로 시작 시간을 앞당겼고 여전히 끝나는 시간은 5시 반으로 같지만 점심 시간을 2시간 늘렸다. 한 낮은 더위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바카병원에 진료 시간을 앞당겨 오전 7시부터 환자접수를

받고 있다.

새로 오신 전등과 상민이가 가벼운 탈수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차례 구입을 위해 땡벌에 자전거를 타고 가야에 나갔

다 온 때문이다. 상민이는 인도에 와서 속이 안 좋다고 저녁밥도 안 먹었다. 그렇게 식성이 좋던 아이가... 게다가 철근에 다쳤던 발바닥에 고름이 차 한동안 고생을 했다.

장국장님은 며칠 전 먹었던 국수가 탈이 난 이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스웨티는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거란다. 그나마 지금 부는 바람도 뜨거운 열풍으로 변해서 불꺼란다. 그저 대책없이 갈 뿐이다.

새로운 병이 돌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차례 유행했던 병으로 면역이 높아져서 잘 견디곤 하는데, 오랫동안 안 나와 있는 자원활동가는 새로운 전등

이 퍼뜨리는 '사오성 바이러스' 에 건디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 입국할 때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전 등 월 공사장에서 상부상조하며 살아 남는 방법.

날씨가 너무 더워 계속 일하는 것도 힘들다. 같이 일하다가 잠깐 일 있는 척 하며 케스트 하우스에 와서 쉬고, 다시 공사장에 가서 인부들과 같이 일하다가 지치면 다시 일 있는 척 하며 케스트하우스에 와서 쉬고.. 이렇게 안 하다 가는 몸이 버티 내지 못할 것이다.

인부들도 이런 더위에서는 얼마 못 버틸 것이다. 한국 사람이 잠깐 케스트하우스에서 쉬는 사이에 인부들도 공사장에서 쉬고, 한국 사람이 다시 일하면 자기네들도 일하고...

서로 이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묘미가 없다면 아마 공사장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살아 남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날씨가 더우니 쓸데없는 생각만 든다.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떠오르며 다음 생각을 해 보았다.

- 만약 수자타에 전기가 들어오면-

(1) 우선 이 곳의 보안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방범등' 에 불을 밝힐 수 있다면 그름날에도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병원에서 냉장고를 돌릴 수 있다. 광

견병 약이나 결핵예방약 BCG, 그리고 결핵환자에게 채취한 가래 등은 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지바카에 냉장고가 있어도 전기가 없어 돌리지 못하고 있다.

(3)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다. 발전기를 돌릴 때만 잠깐 잠깐 하던 사무작업도 연속해서 할 수 있고, 뿌리앙카나 스위트 등에게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시킬 수 있다.

(4)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에어컨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현재 천장에 매달려 있는 선풍기만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5) 새로운 밤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촛불 밑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책을 읽거나 편지를 쓰는 것도 그만, 노트북 으로 영화를 본다거나 무언가 다른 여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6)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 현재 재료를 사와도 하루 이상 버티기가 힘든 더위로 입맛도 없고 신선한 음식도 어려웠는데 시원한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얼음이 공급되니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먹거리들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나쁜 점도 예상된다.

분명히 야근과 잔업이 많아질 것이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해떨어질 때 업무를 종결해야 했는데 전기가 들어오면 이래저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회의도 무진장 늘어나지 않을까???



라선시를 다녀와서

최경숙 님 (미국 뉴욕 제이티에스 라선 상주대표사무소 대표)



3월 2일 토요일, 라선에 도착 물자의 인수

자동차로 라선항에 도착하여 지난 2월 16일 도착한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분유 15톤, 설탕 30톤, 옥수수쌀 30톤, 입쌀 48톤)를 인수하고 제이티에스 영양식 공장 창고로 운송하였다.

3월 3일 일요일, 공장관련 일 보

일요일은 모든 곳이 대부분 논다. 나는 짧은 일정으로 이곳에 왔으므로 일요일이지만 공장의 재고과약, 서류 점검 등의 일을 하였다.

3월 4일 월요일, 선봉시 백학리 백학분장 탁아소 방문

원장님을 만나 그 동안의 영양식 배급과 접수여부, 어린이 출석상황 등을 알아 보았다. 탁아소에 나온 13명은 건강상태가 좋았다. 분장 탁아소 옆에 있는 백학유치원에 올라가 가지고 왔던 사탕과 젤리를 나누어 주었다. 그날 출석한 어린이는 80명이었다.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영양식을 주냐고 문의하니, 원장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해 12월에 전달한 밀가루는 튀김을 하여 주기도 하고 국수를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오늘은 영양쌀가루를 넣고 튀긴 것은 노란색이고 밀가루 반죽을 튀긴 것은 갈색이었다. 그리고 우유와 설탕, 영양가루를 섞은 것을 탄 음료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국제이티에스에서 지난 97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영양쌀가루 식량 지원 덕분에 이곳 어린이들은 매우 영양 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동안 이 식량이 여기까지 도착하도록 수고하신 많은 후원자님과 실무자들의 노고로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음을 알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탁아유치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봉에 있는 상현유치원에 잠깐 들러 원장님께 지난 12월에 찍은 단체 사진을 전달해 주고, 영양쌀가루는 2월에 1톤 75kg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후에는 라선에 돌아와 신흥탁아소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남자어린이 40명과 여자 어린이 20명이 6개월부터 만5세까지 있으며, 영양쌀가루는 120kg 받았다고 하였고 밀가루는 한번 받았다고 한다.



- 탁아유치원 원장님들은 어린이를 위한 체중기가 꼭 필요해서 다음 번에 방문할 때에는 꼭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어린이 체육할때나 노래하고 율동을 가르칠때에 아코디언이 필요한데 몇대만이라도 기증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치약, 칫솔, 양발, 비누, 학용품등 일상 필수품 등도 무척 필요해 보였다. -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현수 님 (동국대 전자공학과 4학년)

봉사란게 무얼까?

대학 4학년! 진로와 취업을 생각하면서 난데없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학점 이수와 장학금 선정 점수의 가산점에 대한 혜택 때문이었다. 취업에도 또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다.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어느 누구의 말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봉사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안됐다. 언젠가 TV에서 본, 휴지통도 없는 사무실과 쌀 한 톨 남기지 않는 식사법이 여기에 있었다. 또한 여기 JTS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다.

이분들의 봉사활동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사명감이나 출중한 기술이 요구되는 게 아니었다.

얼마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JTS에 세 번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봉사라는 게 과연 무얼까?

봉사(奉仕)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다.

언제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밝아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각박한 사회에서, 자신에게 손해를 요구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즉,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 녹아있는 우리에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여기 있는 분들은 묵묵히 하고 계신다. 그것도 웃으시면서.

그래서 JTS에 오면 언제나 즐겁다. 오히려 여유롭기까지 하다.

내가 봉사활동을 나온 건지 이곳 JTS가 나에게 봉사를 해주는 건지 가끔 혼란스럽다.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태어나서 처음 봉사활동이라는 걸 하는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또한 JTS가 나에게 주는 큰 혜택이라 생각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 비단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생각된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면서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더 있을까?

앞으로 남은 봉사활동 시간. 일분 일초를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겠다.

회원관리 자원활동가와의 만남

JTS 회원관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에 의해 되고 있다.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4월12일 정도회관 세미나실에서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대원심 : 화사하게 벗꽃이 필 때 만나 자연 속에서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서로 바쁜 일과로 지금이야 시간을 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사) 한국제타에스를 알게 된 동기와의 만남.

윤미옥 : 정도회에서 하는 백일법문을 듣고 정보자료실에서 봉사를 하다 회원관리실이 새로 생기기 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 잠시 와 일반하다 갔는데 지금은 팀장으로서 전반적인 모든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회원과 전 회원에 대한 상황 파악...

송하경 : 아는 분의 소개로 발송 팀에서 일하다 홍보 비디오를 보면서 가슴이 찡하던 차 일 하시던 분이 사정이 있어 그만 두게 되어 일을 맡게 되었지요. 지로로 온 회비를 노트에 적고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날 들어 온 회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남정 : 오래 전부터 법당에 다녔지만 마음은 있으면서 봉사는 하지 않았는데 아는 분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 심적으로 부담이 없는 회비 상황을 회원 카드에 적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의식이 생기지 않아 이제부터는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맡았으면합니다.

최대원심 : 가정이 있고 자녀분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내서 일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소개와 가족들의 반응은.

윤미옥 : 딸(초등학교 6), 아들(초등학교 2)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는 일을 수시로 알려줍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통해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더욱 남편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 마음까지 젖어질 날을 기다려 봅니다.

송하경 : 큰아들(대학교 1), 작은아들(고1)이 있는데 엄마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 가족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 잔 소리를 안 하니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소남정 : 딸(초등학교1), 아들(6살)이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은 정확하게 몰라도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실에 데리고 오니 이해를 합니다. 남편은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절에 옵니다.

최대원심 : 모두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동안 가정에 충실하게 일을 한 덕분이겠지요.

회원관리를 하면서 보람된 일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송하경 : 그 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이렇게 나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회원이 나날이 늘고 후원금이 많아질 때 비록 팔은 아프지만 흐뭇합니다. 업무량이 많아 가정 일에 소홀해지는 게 좀 걸립니다.

윤미옥 : 회원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 하면 쑥스럽지만 기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모두 할애하는데 업무량이 많아 늘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소남정 :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싶은 평소 마음속에 품었던 일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마음껏 시간을 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최대원심 : 그리고 보니 항상 이웃과 같이 하려는 마음이 이곳에 와 일을 하게 되었나 봅니다.

후원님께 하고픈 이야기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요.

소남정 : 오랜 세월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해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살고 싶습니다.

윤미옥 :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회원님 덕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것은 회원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이 많을수록 좋아요. 계속 저희들을 바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소가 바뀌면 귀찮더라도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쁘게 만든 소식지와 인사 말씀을 수시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저의 생활이 이렇게 계속 생활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송하경 : 애써 버신 돈으로 후원금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며 나를 돌이켜 보고 많이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최대원심 :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 또한 행복합니다. 언제나 어려움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즐겁게 보내요. 화사하게 핀 꽃도 아름답지만 연두 빛 잎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쪽 왼쪽(소남정) 오른쪽(윤미옥)
윗쪽 왼쪽(송하경) 윗쪽 오른쪽(최대원심)

재일한국청년연합 김택수 님과의 만남

- 2002년 4월 15일 라선어린이 결연사업을 꾸준히 해온 일본단체의 김택수님이 JTS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



◎ 귀 단체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일동포 2세나 3세들이 모인 청년단체입니다. 기본 활동은 우리 민족성을 찾기 위한 모임의 단체입니다.

재일동포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민족성을 배우려 합니다. 여러가지 강좌를 하는데 한글 강좌, 민족문화강좌, 한일포럼, 북한인권사업, 역사 교과서문제서명 활동들을 하면서 민족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JTS를 알게 된 경위와 동기.

한청년이 한국 청년과 만남을 갖게 된 것은 199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경실련 청년회, 97년에는 청년문화세타를 통해 1998년 5월에 JTS를 소개 받았는데 라진.선봉지역 사업이 있으니 일본에서 500엔 모아 그것을 북한 어린이 영양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단체도 지원할 단체를 찾고 있었으므로 바로 5월에 유현농장유치원 어린이와 결연을 맺고 지금껏 도와주고 있습니다.

◎ 회원은 몇 명이며 우리 단체에 지원은 몇 명이 하는가.

회원은 400명이며 80여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당 2구좌 정도로 보통 지원하고 있으며 한 구

좌 당 500엔으로 10,000원 정도입니다.

◎ JTS 회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면.

소식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보내고 있는데 북한 의 식량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작은 힘 이나마 참여할 수 있어 기쁩니다.

◎ 자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지요.

60%가 JTS소식지 내용을 번역하고 20%는 단체 활동 보고를 넣고, 20%는 신문과 유엔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소식지를 내는데 비정기적입니다.

JTS 소식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을 토대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5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JTS에 바라는 점은.

북한에 관한 영상물이 있으면 수시로 보내 주기 바랍니다. 회원들과 함께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JT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이 있는가.

회원들이 한글과 영어를 잘 몰라 들어가 보기가 힘듭니다.

예의가 바르고 따스한 미소를 띄우면서 성의껏 답해 주시는 김택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는 소식지에 실을 원고를 부탁한다고 하니 기꺼이 응해주시다.

제 4 차 JTS 국제워크캠프

www.jts.or.kr

젊은 청년들이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인도 체험봉사활동

2002. 7. 2. - 2002. 7. 17

노동으로 하나되는 사랑의 집짓기.

인도에서 함께 하는 15박 16일간의 국제봉사활동!!!

노동을 통해, 봉사를 통해,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자원봉사에 관심있는 가슴 뜨거운 청년, 대학생들은 오십시오.

여기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1. 봉사지역 : 인도 비하르주 가야시 보드가야 근교 동계스와리
2. 모집인원 : 약 100 여명
3. 모집대상 : 제3세계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젊은 청년, 대학생들
4. 활동내용 :
 -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 목욕탕, 화장실짓기
 - 동네 어린이들 돌보기, 씻겨주고 상처치료하기
 - 나무 한그루, 희망 한그루 - 망고나무등 심기
 - 인도인과 함께 문화한마당, 작은 운동회
5. 소요경비 :
 - 참가비 3만원 - 참가비는 돌려 드리지 않음.
 - 캠프 진행비 7만원
 - 항공료, 숙박비, 공항이용료등은 본인부담
6. 일 정 :
 - 접수기간 : 2002년 4월 20일 - 5월 25일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 6월 1일(토)
 - 사전교육 : 6월 6일(목)
7. 접수방법 : JTS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후 메일로 보내고 참가비 3만원을 입금.
국민은행 086-21-0626-011(이지현)
8. 문 의 : 제4차 JTS 국제워크캠프 담당자 김경희(khkim@jts.or.kr)
 전화:02-587-8756 팩스:02-587-8998 홈페이지 : www.jts.or.kr
 137-87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인도결핵퇴치기금을 마련하면서

인도 자바카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결핵퇴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서 마산 유애경님과 원주 신정열님 등 많은 이들의 협조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참여하신 분은 44명이며 금액은 29,650,000원이다.

제4차 JTS 국제 워크캠프 개최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인도 등게스와리에서 100여명의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마을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워크캠프가 개최된다. 어린이 교육, 마을 유치원, 목욕탕, 화장실 만들어 주기,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될 이번 일정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란다.

(문의 : 김경희 02-587-8756)

3월22일 박남규님이 인도 건축담당으로 떠났다. 지난 3월 22일 청년정토회 회장이던 박남규님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도JTS의 건축담당으로 발령받아 인도로 떠났다. 더위와 친구되어 즐겁게 지내기 바란다.

북한 지원 사업

함경북도 라선시 탁아유치원지원 및 농업지원, 청진 고아원 밀가루 지원



4월23일 부산항에서는 옥수수 비닐피복 300정보(1정보에 3,000평), 함경북도 경성군 100정보 총 400정보의 농장을 지원하기위한 물품이 라선으로 향했다. 지원내용으로는 비료 280톤과 비닐 24톤이다. 또한 라선 탁아유치원 어린이들의 영양식 원재료로 분유 15톤, 설탕 30톤, 옥수수쌀 17톤을 지원하며 그 이외에도 노트와 의류 등도 지원된다. 지난해에 이어 청진 고아원 국수공급을 위한 밀가루 100톤 지원도 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4월 23일 부산항을 떠나 25일 라선에 도착하며 물자의 인수 및 분배의 확인 과정을 위해서 4월 27일-30일까지 최경숙이사가 나선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국내 사업

봄 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동

지난 3월 23부터 동국대(6명) 한양대(2명) 학생들이 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홈페이지, 홍보, 회원관리 업무 등의 각 부서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 맞이 조계사 앞 홍보 부수 참가
 2002년 5월 12일(일)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서울 조계사 앞 거리에 홍보 부수를 설치하여 인도 음식 만들기, 짜이 만들기, 인도물건, 판매 등 각종행사가 있다. 가족과 함께 나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김홍신의원 북한 인도어린이돕기 동참
 지난 4월 10일 인도 어린이와 북한어린이돕기 성금200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택배 강남지점 무료운송
 4월22일 서울 정동회관에서 부산항 동부고속재송CY까지 북한으로 보낼 물품 351박스를 무료로 운송해 주셨다.
 JTS사무실에 와 손수 물건을 실어 정성껏 포장과 운송을 해주신 현대택배 강남지점에 감사인 김재운, 박철용, 이근석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어린이가 그린 그림엽서(4중)제작
 (사)한국JTS가 결연 맺은 함경북도 라선시 남산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제작되었다.

물품 지원

- 안응연, 권혜숙(아코디언 3대)
 - 내원사(내의 런닝 및 양말 26점)
 - 성남중학 2학년생, 임순욱선생님 생필품(치솔40, 치약8, 비누17, 연필5타스)
 - 용산동2가 박경의님(크레용11타스)
 - 박기원님(치솔46개, 비누6개)
 - 자비의집(비누 24개, 치약 6개)
 - 대구법당내의 10벌, 노트1권, 치약9개, 필통 3개, 빨간팬26타스, 세수비누 74개, 우산 1개, 수건30개, 추리닝바지 2벌, 장갑1개, 양말15개, 스타킹5개)
 - 구산중학교 환경봉사동일반, 권영미선생님(수건15개, 큰수건1개, 양말10개)
 - 광주시 동구소재 선덕사 (런닝25개, 팬티13개, 양말26개)
 - 무주상(런닝25, 어린이양말8개)
 - 무주상 (치약9개, 치솔13개, 세수비누28개)
 - 무주상 (수건3개, 빨래비누3개, 세수비누 72개)
 - 이인철님 (면바지33개, 남방19개, 반팔남방 5개, 반바지 4개, 여자바지 3개, 잠바 9개, 남자팬티 2장)
 - 이형 (컵라면 90박스)
 - 성영진 (치약 5개, 칫솔 4개)
 - 꼬망새(진은택) (어린이 의류 998피스)
 - 김선우 (작은수건 136장, 큰수건 16장, 여행용치약 30)
 - 무주상 (양말 2개, 연필 23개, 지우개 4개)
- *여러분 마음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2년 2월 16일부터 2002년 4월 10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 211-02595-11 박수민
- 211-02596-11 최재두
- 211-02597-11 장선우
- 211-02598-11 이기순
- 211-02599-11 정환스님
- 211-02600-11 박하영
- 211-02601-11 안정은
- 211-02602-11 이명혜
- 211-02603-11 정원선
- 211-02604-11 백경림
- 211-02605-11 최일선
- 211-02606-11 전재근
- 211-02607-11 권경용
- 211-02609-11 김태일
- 211-02610-11 김남순
- 211-02611-11 금순옥
- 211-02612-11 최은주
- 211-02613-11 김혜숙
- 211-02614-11 금순옥
- 211-02615-11 김지성
- 211-02616-11 김경호
- 211-02617-11 이상옥
- 211-02618-11 오승호
- 211-02619-11 안재인
- 211-02620-11 신미자
- 211-02621-11 백순복
- 211-02622-11 이동선
- 211-02623-11 정미숙

- 211-02624-11 오미숙

단체 결연

- 212-00236-11 김동욱
웅상유치원 43명
- 212-00237-11 김형주
영예군인탁아소 20명

특별 성금

- 차재현(30만원)
- 익명 (500만원)
- 서필교(300만원)
- 최청운, 최소영, 진정연
(500만원)
- 정각사(132만원)
- 명성여교(89,500)
- 부산 김홍준(200만원)

인도 어린이 결연

- 111-02625-14 신순말
- 111-02626-14 최홍열
- 111-02627-14 한성규
- 111-02627-14 윤미라
- 111-02628-14 김순후가족
- 111-02629-14 최옥자
- 111-02630-14 채진연
- 111-02631-14 김명순
- 111-02632-14 박성년

- 111-02633-14 박연숙
- 111-02634-14 최경련
- 111-02635-14 박승자
- 111-02636-14 김귀래
- 111-02637-14
- 고인혁, 고민주
- 111-02638-14 한경숙
- 111-02639-14 이상화
- 111-02640-14 김득분
- 111-02641-14 조윤희
- 111-02642-14 최은주
- 111-02643-14 김해숙
- 111-02644-14 금순옥
- 111-02645-14 김지성
- 111-02646-14 이계성
- 111-02647-14 오승호
- 111-02648-14 권태성
- 111-02649-14 이경미
- 111-02650-14 김민성
- 111-02651-14 류초목
- 111-02652-14 이용직
- 조재정(15만원)
- 공경희(5만원)
- 김동소(15만원)
- 조태환(15만원)
- 정홍자(15만원)
- 김정우(5만원)
- 마산 한마음선원(15만원)
- 류수민(15만원)
- 김진숙(15만원)
- 최홍수(15만원)
- 김영숙(15만원)
- 최태련(15만원)
- 최지형(15만원)
- 최동원(15만원)
- 박남규(30만원)
- 김민규(10만원)
- 박병성, 김명순, 박지영
(20만원)
- 홍재식(15만원)
- 윤원(15만원)
- 박은우(15만원)
- 김애자(15만원)
- 최재철(15만원)
- 김동재(15만원)
- 이광숙(15만원)
- 이수현(15만원)
- 조문권(15만원)
- 류광렬(15만원)
- 서진여행사(20만원)
- 김도영(150만원)

인도 결핵퇴치 후원금

- (2002년 2월20일-4월15일)
- 한성규(20만원)
- 김일선(20만원)
- 남연우(5만원)
- 서봉동 영가 (15만원)
- 김준호(15만원)



15만원이면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후원인이 되어 주세요

한명의 결핵 환자를 완치시키는 데는 6개월이 걸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너 차례 X-Ray촬영을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환자가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한 환자를 완치시키는데 15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개월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인도의 동게스와리 마을에서는 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과 마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전염병, 결핵을 우리 힘으로 막아보고자 합니다. 결핵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바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JTS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 동안 저희 인도결핵퇴치 회원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01년 12월

유운식, 정일례, 이문숙, 김태순, 황귀숙, 권소윤, 박명기, 김희정, 박을순, 민승기

• 2002년 1월

정일한, 김조은, 임효순, 남배현

• 2002년 2월

박덕환, 김정택, 배영미, 전용택, 이종은, 한성규, 김일선, 남연우

• 2002년 3월

이규태, 양두문, 양경철, 양승희, 양지숙, 박병성(김명순, 박지영), 김민규, 박남규, 김준호 서봉동영가, 황성욱, 황순천, 조재중, 공경희, 김동수, 조태환, 정홍자, 김성우, 윤원중, 박주원, 한마음선원(마산), 동화페인트사, 류수민, 김진숙

• 2002년 4월

최홍수, 김영숙, 최태련, 최지형, 최동원, 최동호, 김민규, 박병성(김명순), 양해옥, 기원규, 박은우, 김애자, 최재철, 김동재, 이광숙, 이수현, 조문권, 류광열, 신세권, 서진여행사, 김도영

(4월15일 현재)

국민은행 814-25-0020-902 예금주 (사) 한국제이티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585-16 정동회관 2층 (사) 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전화 (02) 587-8995, 587-8756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2년 2월 9일부터 4월16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지난 자료에 마산 거리모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 서울

박주은 3,070 정민 6,510 하지원 3,440 무명씨 830 우경섭 7,110 소현운 2,400 무명씨 8,010 조한성 3,020 김선민 3,140 무명씨 6,200 신지연 2,630 이소영 3,040 윤경진 4,900 전혜성 3,270 무명씨 4,180 박지우 5,590 무명씨 2,720 이지현 6,200 김지연 3,330 김순형 1,500 고은김아 5,100 강형승 3,600 김호중 4,140 전영재 4,720 김덕현 5,230 김지수 5,790 심유택 40,520 박정진 4,840 박현미 22,120 임진희 6,580 김나영 8,140 모덕 25,490 김정대 23,880 이동현 25,010 박정자 5,500 무주상 46,420 김희영 12,800 김세영 11,790 우광운 28,660 김재천 5,000 윤일경 100,000 무명 1,000 김인정 20,800 무명씨 27,870 무명씨 35,410 현정 40,740 김은숙 26,470 무명씨 29,700 김재연 25,900 고철호 34,810 박해연 6,050 김병서 2,990 김애경 30,720 문형근 20,350 이광노 7,030 박상희 15,950 유미경 12,420 하영희 830 박상희 18,410 손옥순 2,890 우성민 42,550 심유현 64,060 임방희 12,560 하디스 광주 21,280 김은숙 13,500 김중수 37,440 한가연 7,800 박진선 14,540 최원종 39,960 김성희 50,150 김은숙 10,620 하디스 성남점 35,120 오학순 30,900 김연숙 18,630 무명 23,560 강선년 3,110 박미옥 600 우정 20,700 김경일 8,170 남윤극 22,610 우태현 13,040 이명지 3,520 최정연 15,000 신복실 1,030 노승한 노우영 25,620 정영옥 2,000 한순경 10,000 오성순 1,550 이금강 김은구 10,000 노우명 27,200 우연 23,600 한혜자 39,130 안혜원 11,650 남찬길 2,530 남찬길 12,690 배명자 6,320 조청민 2,300 김애자 12,460 김충성 2,800 김용석 4,270 김병수 1,000 홍진국 35,670 안유형 22,810 김정도 10,700 김철수 520 권정원 50,000 백해진 30,000 무명씨 19,750 박광익 29,540 성재광 3,690 전진희 11,400 정수정 3,250 김민주 5,240 정영재 8,310 무명씨 6,570 박진아 3,780 박주현 8,560 김선우 24,400 윤혜선 1,040 이옥준 4,790 박영운 17,580 이윤욱 1,910 박유미 3,290 이옥경 17,900 윤정화 이옥선 10,200 무명씨 1,500 신정열 13,090 신정열 7,420 성남중 12,690 성남중 25,500 김창민 28,370 채운석 23,490 강애니 25,590 강애니 26,510 안옥금 29,320 안부금 30,820 안부금 32,000 이경영 31,830 무명씨 57,520 김기숙 19,870 차호영 20,270 김중숙 8,730 강복녀 25,370 이영조 28,050 무명씨 7,030 박영자 31,890 신은지 11,760 신자은 27,680 박동만 49,280 강창희 28,260 이성하 650 분당하디스 28,020 윤호 12,430 한명숙 14,720 오학순 8,570 무명씨 11,590 무명씨 9,070 무명씨 16,570 무명씨 9,650 최정실 101,310 박영숙 39,660 박동진 49,760 무명씨 20,280 선우정 11,450 이영구김영애 30,000 무명씨 17,130 김경순 26,840 무명씨 19,090 무명씨 19,150 양중혜 12,240 김영민 9,000 장영석 고선화 10,000 한승희 우도련 50,000 고덕규 14,230 유영진 18,890 무명씨 11,460 서치우 58,500 설갑문 14,160 박준규 22,370 불전합652,000 김혜련 20,000 하디스영풍점 31,100 허서중 100,000 황은단 30,000 이택건 10,060 이정진 10,000 장영주 1,580 박선애 12,190 금강일렉트 30,010 임한길 23,270 모당법사 15,040 서병화 28,090 박경 32,960 김석순 6,590 무명 5,590 무명 3,540 전규화 3,760 박상열 6,550 무명씨 21,050 흥민기 5,700 이유정 8,190 이연재 18,400 박상진 4,340 김학운 1,440 문현구 8,340 황동민 5,940 김민지 7,110 이재환 11,860 조청현 7,590 이주희 2,740 김소라 2,440 이승환 12,520 심소영 4,890 박형준 14,650 이수화 11,890 안지혜 20,300 박상경 2,570 이정순 3,660 이윤자 17,700 김영자 21,620 이훈민 35,700 이상열 14,770 장병식 27,360 이진이윤 50,370 김미자 10,130 양미숙 27,680 천재현 34,000 김교원 30,000 박준철 12,470 선곡초등학교 5/4. 133,320 김순기 11,660 김하순 8,180 박기와 2,870 김도희 7,840 송용석 5,550 김경순 31,040 송우담하 34,030 이영순 18,330 진희영 5,510 거리모금 225,570 순명희 13,860 천재현 34,090 무명 35,510 문희연 7,530 김기진 24,680 이선자 69,600 무명 2,350 강숙경 22,440 김남혜 24,850 백혜진 30,000 무명씨 890 무명씨 2,280 무명씨 1,910 무명씨 1,410 무명씨 2,130 무명씨 2,740 무명씨 1,340 무명씨 2,030 무명씨 1,660 무명씨 1,740 무명씨 1,050 무명씨 670 무명씨 3,290 무명씨 900 무명씨 1,230 무명씨 1,230 무명씨 3,050 무명씨 3,230 무명씨 5,020 무명씨 2,840 김민석 2,150 이유진 860 정다영 1,190 김호중 2,950 김승주 15,680 이민우 16,470 임석봉 5,710 손상영 59,280 강형구 19,250 송영조 6,180 김버리 11,770 금민수 0,760 장세환 8,660 황인정 12,200 신성빈 16,760 최세영 16,790 김정현 7,160 조은애 11,800 김동운 3,850 구혜진 2,140 이영지 18,930 이종혁 3,930 김건우 6,210 김지현 23,600 손은정 6,970 문태운 44,740 상환37,100권상복 21,630 김경순 34,050 LA정토회 1,056,000 진솔하디스 29,000 김재천 5,000 장진순 50,360 김혜련 60,000

● 부산

이정현 1,530 정영부 22,330 조지섭 7,170 투다리 14,610 김양진 1,010 이지현 1,430 부산의고1-5반 4,180(덕

련 25,230 변석호 4,790 나노플게발팀 9,860 김내운 15,470 박미희 56,480 강건우 15,410 쿵쿵 4,450 이रो미 31,720 나노플게발팀 8,630 김남석 3,480 서정옥 2,040 무명 25,560 방윤정 1,680 무명 3,990 배세정 6,610 쿵쿵 1,790 조설지 10,120 임대규 1,840 김서희 3,890 윤세정 6,190 무명 2,380 김은혜 9,350 임지연 3,440 김현찬 7,240 강유림 3,900 안상미 3,570 김승주 12,300 김나눔 4,560 박은정2,650 이승욱 5,260고윤경 13,830 허소연 4,200 강건우 16,360 무명 59,470 김명자 10,380 이남선 59,710 김경녀 11,180 장도연 19,390 무명 21,180 조은 상 6,530 이지영 23,960 이호영 7,300 일진행 17,230 무명 44,920 유성경 9,030박병은 3,000 최섭현 최건우 27,670 정복례 35,330 정복례 44,300 김옥련 23,480 김지연 88,510 송형자 21,770 류주영 28,000 정규일 3,730 김민수 31,920 장욱언 26,100 정정희 7,910 강동현 28,000 무명 29,200 이수아 8,050 태길산 38,620 도관 9,360 도관 49,190 권영자 57,100 추병우 추현재 26,880 하성철 3,300 이은경 5,450 무명 16,900 송부순 8,400 차순자 29,080 신순말 3,910 최옥순 27,360 김선화 11,670 무명 41,050 최명숙 13,030 김희숙 3,000 통공초등6학년 19,170 조은이네 18,110 이명숙 19,520 이정선 12,370 박설아 15,160 박은정 25,110 최봉자 18,830 문상구 이영 숙 76,280 정영록 7,140 권소영 101,500 차순자26,190 구훈희 22,470 박주원 10,060

● **대전**

유병훈 19,350 양미정 1,890 서용표 42,000 정순자 5,900 조연숙 7,150 조진석 5,500 김종숙 23,390 홍재식 21,450 김대웅 10,000 무명 1,290 성명숙 3,400 김은희 3,260 이슬임 5,230 변경희 5,970 황귀숙 36,990 김남식 19,780 이연화 4,160 백진현 2,910 김수연 7,450 송영희 5,940 김복순 6,530 양정운 7,440 황귀석17,920 거리모 금 436,860 이수민 15,650 이주영 46,100 이정선 23,680 제순희 24,150 박찬분 2,060 박정애1,540 최만규 4,800 김영택 2,490 조원숙 5,860 이간녕 2,720 변상익 4,120 김명정 2,010 김덕숙 3,180 이부선 3,950 박찬익 4,220 문성임 3,020 서민정 11,320 김진형 11,650 무명2,140 김순용 16,490 양지은 33,330양순기 20,520 이부용 16,820 중앙불교사 9,100 김정근 2,360 이재경 3,940 김정현 1,710 김성근 2,350 천재순 2,520 유인자 18,700 석정수 6,560 손본각자 2,520 박찬옥 2,590 오희진 1,830 이영남 3,180 이순자3,050 이문숙 22,110 김대성 5,010 이상무 2,610 서덕현 12,480 김옥배 9,290 양현호 33,650 하나은행 13,100 정용훈 1,120 조연옥 46,870 박상용 1,880 무 명 1,060 김은정 790 김선례 7,410 오세진 3,450 이남숙 1,530 양심민 8,590 유경민 1,410 무명 2,820 김홍공 1,880 이건호 2,590 김미림 4,180 이순자 3,050 임세미 14,960 무명 2,480 김미택 11,490 양현탁 37,820 김지홍 27,600 무명씨 21,600 거리모금 516,150 김명화 13,440 제갈명자 6,650 전의자 10,780 최정희 13,030 박한성 3,180 정용숙 22,960 무명 21,630

● **울산**

울산명정초등학교 271,910 이언지 23,800 김옥분 26,700 미경후 27,210 무명씨 12,000 무명씨 8,560 무명씨 11,290

● **마산**

범임연 10,000 류초목 10,000 코리아마트 26,850 이윤석 50,000 최원석 10,000 이윤지 47,890 황선옥 30,000 김 미하 22,360 유애경 7,270 김찬민 15,680 최원석 7,930 홍동균 26,780 조선이 14,280 류광열 20,450 문지숙 23,800 문선호 7,820 홍소아과 110,300 무주상 14,600 무주상 25,500 무주상 21,040 무주심 16,010 박귀민 33,130 박숙림 17,280 김도훈 4,630 김형주 34,410 박근숙 17,920 심상현 8,060 최호선 22,790 박주을 11,230 한 초자 14,080 배운오 20,940 김용배 17,210 이희숙 5,120 김동관 29,570 무명씨 3,790 김순임 18,840 선병희 17,750 정필연 21,220 무주상 26,600 윤슬기 12,880 마산거리모금 165,470

누락된 부분

거리모금(12월) 3,107,260 거리모금(1월) 1,960,120 거리모금(2월) 1,516,250

● **대구**

거리모금 186,490 설금자 3,830 무명 26,900 무명 25,500 무명 20,670 무명 48,390 전병찬 21,000 전병득 83,130 김말분 24,060 손창원 36,110 조순옥 36,450 최일선 27,420 윤덕희 34,040 김정식 5,570 오한욱 7,700 손애남 14,060오한욱 12,710 송영화 27,680 고영주 41,640 대구은행 18,670 김연숙 9,560 고금례 5,530 김연화 10,800 김창실32,670 송복귀 17,280 최용근 44,540 최현태 7,090 박정선 23,620 남미순 16,490 김순덕 20,550 이인순 11,600 권순남 15,450 장미미홍실 42,400 조옥문 40,000 전병득 84,500 강수연 헤림 14,360 임은숙 49,910 김옥 자 23,970 쌍마장갑 9,410 박선일 9,740 표은자 24,490 정성호 5,850 신인숙 20,740 박미혜자 26,420 문영순 24,750 김현자 21,610권영순 26,720 모홍심 14,770 무명 33,200 최용근 1,000,000

● **청주**

거리모금 206,310 김미영 10,440 홍문량 10,810 이현정 20,140 윤봉기 30,220 유운식 26,100 유동욱 22,270 유다 인24,540 유현옥 28,350 김예진 4,450 이정희 6,890 김예음 5,920 송복순 46,630 박준자 28,950 유군순 20,780 김동운27,340 민경률 16,970 최수진 23,450 최광수 21,940 홍문량 32,870 김경아 39,900 유수진 3,850 이영희 21,190 박봉준 20,740 박오동 22,200 박영술 40,120 거리모금 132,260

● **광주**

선덕사 216,010



전체 후원 현황

2002.02.01부터 2002.03.31까지 회비가 들어온 내역입니다.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현황

박성종 2만 (유)럭키종합상재 10만 (주)로알기공 9만 (주)경인 20만 강경희 2만 강명수강문수 6만 강상
 옥가족 24만 강석순 1만5천 강세환 5천 강수현 2만 강숙경,최철 2만 강시재 1만 강은주 2만 강인선 1만
 강인숙 1만 강정숙 4만 강중분 2만 강지수 3만 강해수 1만 강현구 2만 강효영 2만 강희 2만 강희선 7만
 강희숙 4만 경은배 2만 경주교도소여직원회급생 2만 계정희 1만 고리곤 1만 고미숙 2만 고미화 2만 고
 순남 6만5천 고은영(연세영) 5천 고정주 6만 고진환 2만 고환숙 2만 공보성 2만 공연선 1만 곡명옥 31
 만 구길용 5만 구이용 3만 권경용,권덕용 2만 권대환,권수현(연) 4만5천 권명숙 6만 권명오 10만 권수영
 20만 권수정 2만 권애란 1만 권윤정 2만 권현양 5천 신명기희 5만 권혁자 2만 권현숙 4만 권해진 4만
 권호중 2만 금순옥 2만 김희식 1만 김복 1만3천 김기영 5천 김강민 3만 김경미 1만 김경옥 1만 김경자
 2만 김경지 6만 김계연 5천 김계화 1만 김광숙 2만 김광호 1만 김광훈 12만 김귀숙 2만 김규탁 2만 김
 금순,이호준 20만 김기성 2만 김기순 5천 김기욱 2만 김기진 2만 김기형,박복희 5천 김나미 4만 김나영
 5천 김남순 2만 김도영 56만 김동균 10만 김동수,정상신 4만 김동숙 2만 김동원 1만 김동일 10만 김두
 레 1만 김랑 2만 김막래 4만 김영숙 8천 김영자 4만 김영주 5천 김영희 6만 김문달 5천 김미경 1만 김
 미경 10만 김미란 3만 김미량 5천 김미량(2) 5천 김미숙 2만 김미숙(스님) 2만 김미자 2만 김민근 2만
 김민국 2만 김민정 5만 김병대 1만 김병양 4만 김병영 6만 김병태 4만 김보영 2만 김복기 2만 김복남 5
 천 김복남 5천 김복련 1만 김복순 10만 김봉아 1만 김상훈 5천 김석준,이해선 3만 김שמ 5천 김선희
 11만 김성곤 1만 김성권 10만 김성기 4만 김성도 3만 김성열 2만 김성은 2만 김성자 2만 김성희 5천 김
 수현 2만 김숙자 3만 김순덕 4만 김순덕 1만 김순수 2만 김순자 2만 김שמ(송현영) 2만 김שמ 1만 김
 이리 5만 김아미 2만 김안옥 6만 김안희 2만 김애숙 3만 김애자 2만 김양기 6만 김양수 4만8천 김양수
 5천 김양식 15만 김영복 2만 김영수 2만 김영숙 1만 김영숙(3) 9만 김영옥 1만 김영옥 1만 김영옥 2만
 김영자 2만 김영호 20만 김영화 1만 김예진 1만 김옥순 5천 김옥이 3만 김용규 4만 김용수 1만 김용수
 (2) 4만 김용숙(2) 1만 김용환 10만 김우기 5만 김운자 6만 김월금,이선영 2만 김월수 3만 김윤영 4만
 김윤희(1) 2만 김은경 2만 김은미 5만 김은숙,정수복 7만2천 김은자 3만 김은하 4만 김은희(3) 5천 김
 응법사님 14만 김을선 1만 김익록 3만 김일형 1만 김재성 4만 김재순 1만 김재영 2만 김재용 5천 김재
 용 4만 김재원 6만 김재중 7만 김재홍(2) 2만 김정민 2만 김정선 2만 김정숙 20만 김정숙 2만 김정우 5
 만 김정욱 2만 김정자 1만 법응스님 4만 김중숙 5천 김중숙(2) 2만5천 김중아,이순분 4만 김중하 2만
 김중훈,윤재숙 1만 김준국 1만 김준서 1만 김준조 1만 김준조 1만 김지수 1만 김지연 2만 김지윤 20만
 김지는 1만 김지현(연세영) 5천 김지혜 1만 김진호목사님 10만 김창환 2만 김철수 2만 김태경 5천 김태
 일 2만 김태희 6만 김학철 3만 김희기 1만 김현기 3만 김현빈 5천 김현섭 6만 김현옥 1만 김현우 10만
 김현주 1만2천 김현주 2만 김현철 2만 김형기 10만 김혜순 2만 김혜원 1만 김혜정 7만 김홍미 3만 김화
 숙 2만 김화순 2만 김화국 3만 김호천 2만 김희섭 6만 김희섭 2만 김희수 15만 김희숙 6만 김희자 20만
 김희정 4만 나외우리 46만 나충주 5천 남궁선(정영희) 5만 남상호,남성우,박민신 1만 남선옥 5천 남선
 희 3만 남영옥 2만 남영숙,이재광 20만 남화옥 2만 노경태 5천 노귀여 1만 노문용 2만 노선애 2만 노송
 옥 1만 노은정 2만 노임순 1만 노재원 2만 노철호 1만 노희순 5천 누리다문(나준식) 10만 노상금 4만
 도우희 2만 동남일조공투회의 1752만9740 동의대한의대8기 24만 럭키종합상재 10만 류성열 1만 류성옥 1
 만 류성희 1만 류재상 2만 류현복 4만 미경숙 4만 미산청송한의원 2만 문현영 2만 문희정 1만 민성복 1
 만 민수경 1만 민숙례 2만 민인홍 1만5천 박경민 2만 박경옥 1만 박경진 6만 박관자 1만 박규홍 2만 박
 근직 2만 박근덕 20만8934 박남기 1만 박대식 16만 박동환박동미박소라박소희 2만 박리영 4만 박명운 1
 만 박민화 3만 박봉진 40만 박석규 22만 박석주 1만 박선영 4만 박성숙 1만 박소희 4만 박수민 2만 박
 수연 1만 박수자 4만 박순자 1만 박신호 3만 박영교 5천 박영선 6만 박영훈 2만 박운기 1만 박운희 4만
 박은우 2만 박은자 2만 박은정 2만 박은주 4만 박은혜 6만 박의인 5천 박인숙 8만 박인숙(2) 5천 박재
 복 3만 박재윤 3만 박정대 1만 박정덕 40만 박정숙 4만 박정에 2만 박정연 4만 박정우 3만 박정호(2) 1
 만 박정희 3만 박중만 3만 박중서,백은경 1만 박중운 1만 박준자 3만 박준자 6만 박중희 2만 박진선 5
 만 박철홍 1만 박혜연 10만 박현미 2만 박현숙박경미 1만5천 박현숙(2) 1만 박현숙(3) 2만 박혜경 2만
 박희희 2만 방승재(젊은이의모임합산) 10만 방정선 4만 방관철 10만 방형국 1만 배상훈 1만 배성호 2만

배영균 1만 배영미 103만 배은희(김홍선) 2만 배정화 2만 백경림 1만 백성애 3만 백성현 2만 백순례 1만5천 백순이 2만 백순주 4만 백순호 1만 백시영 2만 백애란 4만 백연선 4만 백영자 1만 백정호,구영자 1만5천 백중우 2만 백진주,윤선주 6만 백철균 1만 변성윤 1만 변수식 10만 변지학최순희 2만 부부선재회 10만 부산청년전도 120만 불교밥부회 3만 사은희 40만 상운송님(박숙자) 1만 서경석 2만 서경숙 1만 서광석 2만 서대석 2만 서대하 2만 서동우 4만 서동희 1만 서리벌고등학교2학년5반 30만 서석곤 2만 서용표 3만 서울대보건의대학원황경95 8만 서울대역사과87 12만 서울대두업 22만 서지영 1만 서춘성 1만 서현수 3만 서혜정 2만 설실웅 1만 설현의원 4만 성낙표 1만 성동제 5만 성명호 1만 성산초등학교 45만 성숙경 1만 성영우 4만 성일수 2만 성하성 6만 소남정 1만 소무재,유옥진 4만 소병선(자광우) 2만 소태정 2만 손경숙 3만5천 손경순 5만 손경애,이정동,이임정 2만 손애수 2만 손정남 1만 손준석 6만 손준기 10만 송동언 1만 송만수 1만 송민하 4만 송상기 1만 송순자 1만 송영돈 5천 송영태백기순 4만 송정민 5천 송중순 6만 송준영 6만 송하경 2만 송하영,송동원 1만 신경화 1만 신태호 (합덕신하의원) 30만 신통열 2만 신통현 2만 신평화 2만 신선녀 1만 신성애 30만 신양희 6만 신연숙 6만 신영숙 2만 신영자 3만 신원철 5천 신은영 3만 신익철 2만 신재동 2만 신재순 2만 신정순 2만 신주호 20만 신진현 70만 신정구 1만 신현정 2만 신현중 2만 신현진 1만 신혜정 5천 심상득(한마음회) 20만 심상보 2만 심상우 2만 심상태 2만 심우희 10만 아원공방 10만 안규환 4만 안금자 2만 안선옥 1만 안선화 2만 안성진,안재용 5천 안순득 11만 안승규 1만 안운영 1만5천 안정연 1만 양광혁 2만 양선미 5천 양선주 2만 양수지 4만 양승업 2만 양승일 2만 양애자 7만 양영숙 4천 양영우 10만 양옥자 10만 양운덕,오현수 20만 양윤희,김영환 6만 양정윤 5천 양철길 20만 양혜윤 20만 엄기자 5천 엄창수 4만 엄호순 2만 여영윤 2만 여희숙 1만 연동희 2만 연재욱 2만 연철가르미 6만 영남농업시험장 74만5천 영축산사람들 40만 오진 3만 오경진 2만 오금실 6천 오동환,오경환 4만 오선희 2만 오세홍 2만 오순기 6만 오영아 2만 오원순 2만 오은주 3만 오익환 4천 오정순 2만 오항자 1만 옥영미 1만 우정숙 2만 우정인 4만 우창석,우수경 1만 원서영 2만 유길하 1만 유경자 2만 유경화 1만 유광중 6만 유광진 5천 유근옥 2만 유금 10만 유길자 4만 유명덕 2만 유명희(이네스) 5천 유미경 1만 유미옥 10만 유상혁 2만 유성천 2만 유성현 20만 유수용,유새미 4만 유숙이 4만 유안나 1만 유애경(마산정토) 108만 유여여성 4만 유영선 2만 유인자 1만 유특수,정수경,유건희 1만5천 유하얀,유한샘 4만 유한택 2만 유혜선 1만 윤대호(요셉) 5천 윤미옥(1) 1만 윤선에 2만 윤연경 1만 윤영숙 3만 윤원수 4천 윤정자(2) 4만 윤정준 3만 윤지원 1만 윤혜영 2만 윤형락 1만 윤혜경(강형규,강형주) 2만 이형 1만 이가영 5만 이건정 2만 이경선 5만 이경숙 4만 이경순 6만 이경현 2만 이경희 2만 이계원 2만 이귀숙 6만 이귀용 2만 이규태,이정은,이종은,이종현,김현숙 4만 이교 20만 이기순 70만 이기슬 2만 이기팔,이강성 2만 이기범 1만 이동윤 1만 이명숙 8만 이명희 1만 이묘남,조성운 9만 이미경 5천 이미숙 2만 이미숙 1만 이미비 2만 이미정(3) 1만 이미혜 3만 이민선 2만 이병천 3만 이병천 6만 이병철 5천 이봉순 4만 이부규 1만 이상균 1만 이상수 7만 이상열 2만 이상호 9만 이선경,강자인 1만 이선규 5천 이선민 2만 이선애 1만 이선애 10만 이성숙 1만 이성욱 2만 이수경(2) 2만 이수경(3) 1만 이수봉 2만 이수원 1만 이숙재 2만 이순옥(보리행) 3만 이순향 1만 이순호 3만 이송남 20만 이연영 9만 이연희 2만 이영경 2만 이영란 1만5천 이영석 9만 이영식 2만 이영숙 3만 이영자 2만 이영환 2만 이옥수 1만 이옥순 2만 이옥지 2만 이옥서 4만 이용자 4만 이윤경 4만 이은경 2만 이은수 4만 이은중 2만 이은주 4만 이지명 5천 이재명 5천 이재선 2만 이재순 1만 이재의 4만 이재현 4만 이정숙 31만 이정이 1만 이정주 2만 이정현 4만 이정희 1만 이준순 1만 이준애 2만 이준열 1만 이준은 6만 이준일 6만 이준혁 3만 이주경 1만 이주영 3만 이주옥 2만 이준걸원장님 10만 이준하 5만 이준호 6만 이지복 4만 이지식 2만 이지연 10만 이지영(2) 2만 이지은 6만 이지현(덕생) 5천 이진아,이홍성 2만 이진희 2만 이창숙 2만 이창연 5천 이천오 3만 이철환 1만 이철도 5만 이철하,이지하,이홍하 2만 이창우 20만 이환 1만 이환규 2만 이한수 2만 이한우 13만 이항명 1만 이혜숙 2만 이혜진 2만 이홍규 1만 이홍균 2만2천 이화은 2만 이희연 20만 인헌중학교 19만9천 인헌중학교교사들(2) 3만 인헌중학교교사회(1) 15만 일화스님 6만 일과놀이출판사 22만 임경미 1만 임경희 1만 임공자(차용길) 15만 임규수 1만 임덕순 2만 임상민,임상목 2만 임상숙,김무관 3만 임영신 1만 임창호 1만 임춘수 2만 임현주 13만 임호순 4만 임희영 1만 작은이를생각하는사람들 174만 장원 1만 장경익 9만 장광성 1만 장부영 10만 장성우 6만 장성호(인도회원에이력) 4만 장원수 1만 장원익 3만 장은미 2만 장일선 1만 장자공무방(김영문) 14만 장작불(이명자) 5만 장재호 2만 장진희 2만 장창호 3만 장철수 3만 장택현 2만 장필래 5천 장하주 2만 장하나(2) 2만 장효란 2만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237만1870 재일한국청년연합 1181만9240 전건재 5천 전경란 1만 전경혜 4만 전단희 4천 전병찬 1만 전병화(장임식) 1만5천 전세진 1만 전순자 1만 전은미 1만 전정

란 1만 전정훈 1만 전창훈 1만 전호진 2만 전홍대 3만 정경자 1만 정경주,곽영숙 29만 정광화 2만 정말
 숙 4만 정명희 2만 정명희(2) 1만 정미순 5천 정병수 4만4천 정상일 2만 정석원 2만 정성숙 9만 정수정
 2만 정승환,이동은 5천 정애경 3만 정여름 2만 정연후 1만 정영배 1만 정영부 2만 정영순 1만 정영자 1
 만 정영희 5만 정유선 1만 정유진,최윤선,정해인 20만 정윤길 3만 정은숙 102만 정은숙(3) 51만 정의석
 5천 정의정 20만 정일국 4만 정임영 5천 정정모 4만 정정숙 5천 정태연 4만 정토대학생회 10만 정현스
 닐 2만 정현기 5천 정현숙 1만 정현철 1만 정혜수 1만 정혜수 2만 정혜중 1만5천 정혜중 1만 5천 정혜
 진 1만 정화선 2만 정화선 5천 정희택 1만 제송희 2만 제일투자증권 8만 조경아 1만 조금자 1만 조금
 자(2) 2만 조금희 1만 조길래 1만 조남희 2만 조대환 2만 조명숙(2) 2만 조명숙(3) 4만 조미경 3만 조
 미라 9만 조병래 1만 조병무조병주 1만 조수연 1만 조영곤 2만 조영보 1만 조옥분 2만 조은성 1만 조장
 순 10만 조정원 2만 조정옥 1만 조정원 1만 조정주김민영 4만 조철현 1만 조혜진 1만 주용호 1만 주한
 섭 4만 지금련 1만 지명자 1만5천 지선주 1만 지성한의원 27만 지원중 2만 지중룡,홍현주 2만 지철이네
 집 13만 진여당 50만 차길호 5만 차덕수 5천 채금신 2만 채금미 3만 채길름 10만 최경숙 10
 만 최고은 2만 최광규,김길자 2만 최광수 2만 최규은 5천 최금숙 5천 최기영 5천 최명자 1만 최명호 2
 만 최미연 10만 최미전 1만 최봉자 2만 최봉철 1만 최상기 4만 최석중가족 2만 최소영 3만 최수자 2만
 최승엽 1만 최양희(대원스) 1만 최연숙(2) 1만 최영심 5천 최영옥 4만 최영택 3만 최영화 4만 최용선 2
 만 최원목 3만5천 최원준,곽순영 6만 최은숙,장주현(아기) 4만 최은주 2만 최인선 10만 최일영 4만 최재
 두 7만 최정연 1만 최정화 3만 최진홍 2만 최진영 5천 최진혁 1만 최춘순 6만 최춘우 1만
 최현애 1만 최혜자(김광원) 4만 최희선 5천 최희선 5천 통일미래를잇는청년들 128만1890 파워미디어드
 선텐팅 20만 파워미디어(컴퓨터월드) 18만 하근수 10만 하용란 1만 한사진 1만 한상규 ,한희영한희만 4만
 한판기 1만5천 한혜숙 7만 함재혁 3만 허정도 4만 혜륜 30만 흥가브리엘 2만 흥기인 1만5천 흥범기 15
 만 훈순우 1만 흥영준 2만 흥진국 4만 황구성 2만 황귀숙 2만 황미경,김상훈 10만 황미숙 2만 황미숙
 (2) 10만 황범주 2만 황복석 1만 황성희 5만 황순국 2만 황승오,임숙이 4만 황은단 2만 황인수,홍정순 2
 만 황준하 3만 황현식 2만 황현주,박병환 9만 황희리 1만 희망세상어린이집 30만

● 인도 어린이 돕기 후원

김현주 2만 각철스님 5천 강한,강은혜 2만 강경백 5천 강계옥 1만 감미자 1만 강성구 1만 강수빈 6천
 강순남 5천 강여경 5천 강영신 6만 강유태 1만 강재연 3만 강주영,이순복 2만 고경옥 2만 고미영 1만
 고민재 2만 고봉자 3만 고승호 2만 고춘복(보리행) 5천 고희숙 1만 광명희,김영희 2만 구미경 5천 구미
 연세외국어학원 200만 권기철 10만 권덕순 1만 권미화 2만 권수영 2만 권승숙 6만 권영선 2만 권영순 1
 만 권익현 2만 권정원,김용석 2만 권희자 5천 금천선원귀중 20만 김경연 2만 김경희(화광명) 5천 김광
 수 1만 김광웅 1만 김광호 10만 김광호 1만 김광훈,김수경 3만 김금숙 2만 김금자 1만 김기동박현숙 2
 만 김기숙,김재희 1만 김기현 4만 김길자 6천 김누리,김두레 1만 김동수 2만 김동영,김민영 1만 김동윤
 (실상화) 10만 김득분 1만 김명렬 2만 김명렬(변정법사님) 5천 김명숙 5만 김명숙 5만 김명옥 2만 김명
 혜 3만 김명희 6만 김묘길 6만 김무량화 1만 김미정(3) 1만 김민정 1만5천 김부경 2만 김상수 1만5천
 김상철 3만 김상호 2만 김상호(2) 1만 김상훈 5천 김석희 2만 김선희(3) 3만 김설연,박충규,박형규 2만
 김성준 2만 김소연 10만 김승란 2만 김수경(3) 1만 김수복 4만 김순자 5천 김순희 5천 김애경 10만 김
 애리 2만 김양수 5천 김양순(2) 1만 김영란(2) 2만 김영수 1만 김영은(2) 1만 김영자 2만 김영자(1) 4만
 김유분 1만 김옥성(현민,현우) 4만 김옥자 1만 김옥정(안진희) 5천 김완수,서성필,김학중,김학선 10만
 김응극 1만 김용보 2만 김용자 1만 김웅주 10만 김운배,이근석,이보경 5만 김윤숙,안무하 4만 김윤태(법
 산) 5천 김윤희 1만 김은영 1만5천 김은옥 5천 김은정 2만 김응서,김영희 2만 김의숙 5천 김인하 1만
 김재령 5천 김재영(묘당) 5천 김재운 2만 김점애 1만 김정남(고불스) 5천 김정미 1만 김정민,김상훈,김
 중호 1만 김정숙(모수) 5천 김정숙,곽근 1만 김정옥 3만 김정자 6만 김정혜(2) 1만 김정희 2만 김중근
 2만 김중덕,김희정,김현수 5만 김중우 1만 김중완 3만 김진숙 4만 김찬우 2만 김창삼 1만 김창연 10만
 김철민 2만 김태희 3만 김필성 2만 김해옥 5천 김행정 2만 김혜순 5천 김혜영(2) 5만 김혜정 2만 김홍
 섭 2만 김화자 1만5천 김화춘 1만 김호진,김팔순 6만 김희수 1만 김희태,김니영 4만 니정인 5천 나희옥
 1만5천 남경봉 2만 남석모 1만 남연우(무변스) 3만5천 남재천 5천 남화정 1만 노옥재 5천 노정우 1만
 도상금 4만 류만재 1만 류영호 2만 류재현 1만 류해권 4만 류형주 3만5천 문금영 1만 문길련 1만 문보
 경 2만 문재옥 2만 문정수 5천 문정자 2만 박광식 3만 박규산 3천 박기선(해광) 1만 박기주 2만 박노현
 5천 박대근 2만 박대식 1만 박덕성 2만 박영숙 2만 박문규김광태 2만 박문수 1만 박문심 2만 박미숙 2
 만 박미은 10만 박병훈,박나리 2만 박복송 6천 박상웅 3천 박석동(법림) 5천 박선기 1만 박선자 4만 박

성숙 1만 박성원 240만 박성희 2만 박수일(보수) 5천 박숙희 1만 박순천 2만 박애란 1만 박애란(보광화) 5천 박애순 2만 박양진 3만 박연숙 2만 박옥희,박옥임 1만 박웅민 2만 박우준 5천 박윤희 3만 박은숙 2만 박은영 5천 박은향 5천 박을수 5천 박의용 4천 박정례 2만 박정숙 1만 박정순 4만 박정우 4만 박중구 3천 박중원 1만 박종혁 2만 박주임(여려분) 2만 박준 5천 박지연 5천 박진현 1만 박향재 2만 박현숙(1) 6만 박현숙(2) 1만 박효선 10만 박희국 1만 방인복 1만 배경숙 2만 배정옥 2만 백두현(선재) 2만 백석희 4만 백숙진 5천 백혜은(공덕품) 5천 법륜스님(최석호) 5천 법연스님 1만 변성윤 1만 변은아 1만 변형석,변강혁 2만 복익성 2만 봉금례 4만 불광희 5만 불전합 30만 사명순 1만 서기수,서나연 12만 서성무 2만 서혜영,고철수 8만 석미경 1만 성소영 1만 성수경 5천 성은주 1만 성춘복 2만 소병관 1만 소흥남 6천 سنگ영 10만 손경희 2만 손금애,이승아,이선엽 1만 손순호(농인스님) 2만 손영이 4만 손왕목 3만 손진길 3만 손평자 1만 송동현 5천 송명희 4만 송상식 1만 송순희 15만 송영경 2만 송외수 2만 송정희 5천 سنگ오 1만5천 سنگ월 1만 신남식 2만 신동윤 1만 신동을 1만 신배식,성민수 3만 신세권 2만 신순말 3만 신순자 1만4천 신연숙 2만 신영미 6만 신원선(지재법사님) 5천 신점식 1만 신희순 2만 심은하 2만 안민환(지장법사님) 5천 안소연(3) 1만 안순희,윤효남 6만 안영덕 2만 안옥순 2만 안은영 1만 안창숙 2만 양명수 3만 양영우 5만 양우진 4만 양창순 1만 양태희 10만 양현애 6만 엄기대,김순기,엄성현 1만5천 엄익인 1만 엄철용 1만 오영수,서현주 4만 오은선 2만 오점순 2만 오정명 4천 오정숙 5천 오환순 1만 옥경우 5천 우계영 20만 우영미,이창석 2만 원종스님 2만 원지혜 7천 유미경 1만 유병욱,김정옥 2만 유상열 1만2천 유상완 2만 유수스님 5천 유점덕 5천 유정길(법운) 5천 유티려 2만 윤교원 4천 윤규희 2만 윤미영 2만 윤보운 2만 윤성희 1만 윤성희 1만 윤영선 2만 윤영실(지재광) 5천 윤종배 3만 윤진옥 1만 윤재근 3만 윤태일 5천 윤해숙 2만 음승환,음주완 2만 이경남 3만5천 이경래 2만 이경선 20만 이경화(2) 2만 이경희,이상현 1만 이광숙 2만 이규홍,이혜진 2만 이규홍 10만 이금자 3만 이길용 1만 이덕아 5천 이덕중,조종남 6만 이말숙 2만 이명희 5천 이복남 6만 이상동 2만 이상락행 4만 이상식 1만 이상욱 2만 이상태 2만 이상화 1만 이상훈 5천 이상순 4만 이석철 1만 이상호스님 1만 이수경 2만 이숙희 1만 이순근,이원수 1만 이순길 1만 이순애 2만 이순연 2만 이소희 1만 이숙순 1만 이숙용(종법) 5천 이숙재 2만 이소희 4만 이신숙 2만 이안홍 6만 이영숙 4만 이영숙 3만 이영숙(일지행보살님) 2만 이영희(1) 2만 이영희(2) 1만 이옥수 1만 이외희 3만 이용우 4만 이윤길 1만 이윤경 2만 이윤규 2만 이윤선 2천 이창홍 2만 이정민(보련화) 5천 이종두 5천 이종주,이주희 2만 이주엽 2만 이준목 1만 이지현 2만 이창석 1만7680 이창윤 1만 이창도 3만 이초아 2만 이춘남 1만5천 이태성 20만 이한중,이석춘 3만 이해일 5천 이혁재 10만 이현목,김태순 30만 이현정 3만 이현호 9천 이형주 2만 이혜련 2만 이혜성 1만 이희승(반야월) 5천 이희순 1만 이희정 3만5천 익명 500만 인준순 1만 임선호 3만 임수진 3만 임순옥 6만 임영필 2만 임은주 2만 임재근 2만 임정복 5만 임혜진 5만 장성희 1만 장덕희 2만 장석태 10만 장성호 6만 장순자 5천 장연지 8만 장영은 4만 장영주 5천 장옥희 1만 장원옥 2천 장일우,남순우 1만 장재영 4만 전서연 2천 전재근 1만 전정란 2만 전홍대 3만 정영 2만 정각사 132만 정경빈 3천 정광희권진숙 4만 정구락 2만 정구조 10만 정남식 2만 정돈영 4만 정명자 2만 정무권 1만 정순임 5만5천 정안숙 5천 정안자 2만 정영옥 4만 정윤영 1만 정은숙 20만 정인경 2만 정정국(명조스님) 5만 정정영 6만 정정임(최상미) 5천 정정자 1만 정주연 1만 정창덕 3만 정천현 2만 정태호 2만 정혜원 5천 정화중 2만 정화희 2만 정희경 2만 조경식 1만 조금이 2만 조문 2만 조민정,조화정 1만 조선자 1만 조성필 2만 조윤숙 1만 조윤희 2만 조윤희 2만 조인순 5만 조재형 1만 조진규 1만 조진현 5만 조혜란 2만 조화제 1만 주복식 2만 주숙영 2만 지미경 2만 진영희 1만 진태관 2만 진혜연 2만 차경렬 2만 차미리 1만 차재현가족 33만 채관석 1만 체세희 10만 채영미 5천 채혜연 6만 천정임 1만 최경련 1만 최귀옥 2만 최기주 2만 최기진(정행) 5천 최상순 3천,서경숙 2만 최영희 2만 최옥자 1만 최용재 2만 최우택,최정경 3만 최원목 1만 최윤정 5천 최은석 2만 최일선 3만 최일옥 5천 최정목 1만 최정섭 2만 최진구 4만 최진실,최병연 1만 최진이 2만 최충락 4만 최필선 2만 최해담 2만 최현태 4만 최희선 5천 추인호 2만 하경희 2만 하상수,윤해경 2만 하순자,정혜원 1만 하정우 6만 한경숙 3만 한민석 3만 한상복 4만 한상천 10만 한상표 10만 한선미 1만 한성자 3만 한성희 4만 한승수 6천 한승협,한영태 3만 한연호 5천 한인봉 1만 한정혜 3만 한초자 205만1천 한판길 1만 한혜숙,진성근 2만 한혜자 1만 한희정 2만 한희진 2만 함용마 110만 허미혜 2만 허애영 1만 현장스님 10만 현진스님 1만 혜선스님 5만 황기자 5천 홍원선 1만 황금영 2만 황순례 2만 황순례 2만 황영진 2만 황인근 5천 황인숙 1만 황희숙,남소영,남창길 5천

* 잊지 않고 회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혹시 회비 상황이 잘못되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2-587-8995 윤미옥)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4. 10 현재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고 한 줌의 티끌이 태산을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4. 10 현재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이면 인도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이면 펌프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정기 거리 모금 행사

서울 :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 : 부산정보회에서는 매월 격주로 일요일 오후 2시~4시까지 부산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 첫째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이나 유치원 등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의 류 : 어린이 의류, 잠바, 패딩조끼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국내와 해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의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 기능이 있는 사람은 기능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 JTS가 일구어 가는, 기아, 질병, 문맹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 **해외 장기 봉사활동(인도)** : 6개월 이상 인도 등게스와리 JTS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 교육(유치원, 초등학교): 6개월 이상 인도 등게스와리 JTS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 의료(자바카 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 무료급식, 건축,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 **해외 단기 봉사활동(인도)-워크캠프** :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보름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국내자원봉사활동**
 - 사무보조, 후원 물품 정리, 소식지 제작, 홈페이지 돕는이, 영상물 제작, 운전 등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앨범정리, 스크랩 등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7-8756, 587-8995

E-mail:jts@jts.or.kr

www.jts.or.kr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